

옛보기, 괴롭히기에서 해결사 노릇까지?

-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반사회적 기능 -

문순철

1. 들어가는 말: 주말 저녁의 광란성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시다구요? 오늘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가 있었다구요? 대학은 꼭 가야되나구요? 이런 분들은 주말 저녁 TV 앞에 와보세요. IMF도, 실직의 공포도, 입시 부담도 없는 별천지가 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는 신나는 음악과 열정적인 춤, 요절복통할 장난과 오락, 여기에다 인기 절정의 최고 연예인들까지, 갖가지 즐거움이 넘치는 곳. 꼭 한 번 놀러오세요. - 주말 저녁 버라이어티 쇼 일동.

주말 저녁 황금시간대를 점령해버린 대형 버라이어티 쇼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화려함과 강렬한 재미를 앞세우며 시청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매혹적인 선전 문구를 그대로 믿는 시청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스트레스도 풀고 휴식도 취할 겸 시청했다가 오히려 정신적 피로와 짜증만 더했던 기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 하고 무너뜨리기 일쑤인 주말 저녁 오락프로그램들은 특히 나이 든 시청자, 아니 20대 후반 이후 시청자들에게 더 큰 불만과 실망의 대상이다.

대개의 주말 저녁 버라이어티 쇼는 십대 취향의 떠들썩한 오락과 한바탕 장난, 그들만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와 그들만이 구별할 수 있는 가수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탤런트와 개그맨들이 총출동하는, 그들만의 경연장이 되어버렸다. 시끄러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문화적인 충격과 자괴감, 소외감을 느껴야 했던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이들 버라이어티 쇼는 더 이상 흥겨운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주말에, 그것도 가족시간대에 집중된 이같은 천편일률적인 오락 프로그램들은 결국 세대간의 벽을 실감케 하며 단절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여러 세대가 어울려 볼 만한 오락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던 시청자들은 그래서 어느

한 코너라도 가족이 같이 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시청해주고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예전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 보내주던 시청자들의 애정과 관심이 바로 그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런데 이젠 그마저도 아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가족 중심적인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받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마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쫓는 저급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지금, 대다수 시청자들은 주말 저녁에 즐길 만한 변변한 버라이어티 쇼 하나 가지지 못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추락이 안타까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훈훈하고 기분 좋았던 기억을 가졌던 이 프로그램의 타락은 그런 면에서 분노까지 일으키게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정리하여 휴일 밤의 포근함을 제대로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분석한 것이다.

2. 버라이어티 쇼의 유행은 <일요일 일요일 밤에>로 통한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십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유행과 화제를 몰고 다니며 높은 시청률을 자랑해온 관록의 프로그램이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이처럼 오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웃음에 대한 욕구와 정서를 발빠르게 수용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여러 시도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곧 동종 프로그램들의 모방을 통해 퍼져나갔으며, 때론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파장을 형성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 좋은 예로, 일회성 웃음으로 끝나고 마는 코미디에 최초로 공익성 개념을 도입해 사회적인 성과까지 거뒀던 ‘숨은 양심을 찾아서’와 ‘이경규가 간다’를 들 수 있다.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양심을 통해 웃음과 감동, 나아가 삶의 희망과 믿음까지 주었던 이들 코너는 코미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이처럼 좋은 선례만 남겼던 것은 아니다. 차라리 소개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최초로 도입하여 온 나라에 유행시켜버린 좋지 않은 선례도 남겼다. 바로 ‘몰래카메라’가 그것이다. 여럿이 짜고 한 사람을 속이면서 속는 사람을 철저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몰래카메라는 남을 훑쳐보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면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몰래카메라는 가장 손쉬운면서도 효과적인 방송 제작 기법으로 그때부터 일반화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이른바 ‘왕따’ 문화와 상호불신 풍조 만연을 부채질한다는 비난과 함께, 은밀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음란물을 제조하는 범죄에 이용되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을 낳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최초로 도입한 보조 자막 처리도 일본 오락 프로그램의 모방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뒤질세라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필수 아이템 중의 하나가 됐다. 자막의 잘못된 표기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문제, 아이디어 빈곤을 기발한 자막 한 줄로 때우려는 구성력의 부족 등은 접어 두더라도, 자막이 출연자를 희화하고 무시하는 또 다른 몰래카메라처럼 사용되면서 가학적 웃음을 유발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은 자막 남용의 가장 심각한 폐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뮤직 드라마와 패러디 드라마, 심리 드라마 등 오락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장르 파괴를 선도했던 코미디와 드라마의 접목도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여러 프로그램에서 애용되고 있는 단골 아이템이다.

이처럼, 좋고 나쁨을 떠나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변신과 유행을 선도하며 주말 저녁 버라이어티 쇼의 대명사처럼 군림해왔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공익적 코미디를 통해 보여준 보편성에 근거한 웃음의 공감대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전국민적인 오락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런데 올 해 들어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달라진 것이다.

3. 사공이 없어도 배가 산으로 간다

오늘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있게 한 이경규의 공백과 그 뒤를 이었던 김국진의 휴식 선언은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우왕좌왕하게 했다. ‘숨은 양심을 찾아서’와 ‘이경규가 간다’의 성공 이후, 공익적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보물을 찾아라’와 ‘대단한 대결’ 등 새로운 코너를 신설했다. 견실한 중소기업이나 농촌 후계자를 후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의 ‘보물을 찾아라’는 200만원이라는 현금찾기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난과 함께 장소를 제공한 특정 기업과 유원지를 홍보한다는 문제점이 맞물려 못하고 막을 내렸다. 김국진과 영재가 지식 대결을 벌이

는 ‘대단한 대결’ 역시 영재 발굴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지만, 스튜디오에서 보여주는 가시적인 대결에 머물러 단편적인 암기력 테스트만 하다가 끝났다.

‘보물을 찾아라’ 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익성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아예 프로그램 제목을 <해결대작전 일요일 일요일 밤에>로 바꾸면서 보통 시청자들 중 수혜자를 지정하여 도와주는,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혜성 프로그램으로 선회했다. IMF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신장개업’ 과 시청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와주세요 소원해결’, 그리고 건강 정보 제공과 함께 실험에 참여한 자원자들에게 역시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건강을 잡아라’ 코너가 그것이다.

이 중 ‘신장개업’ 은 어마어마한 금전적 지원과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장안의 화제를 모으면서 지금껏 이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두 코너는 처음부터 예상됐던 문제점만 새삼 확인시킨 채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지난 4월 중순부터 갑자기 공포 체험으로 내용이 바뀌어, 번지점프와 소방훈련, 신장개업 이 세 코너로 구성되었다. 이리다보니 신장개업 코너를 제외한 두 코너가 ‘높은 곳에서 연예인 떨어뜨리기’ 이다 보니, <추락대작전 일요일 일요일 밤에>로 제목을 다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진행자의 개성과 능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코너들로 재미를 봤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역으로 이를 대신할 만한 진행자가 없어 가학적 코미디와 선심성 코미디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아가는 것을 보면 안쓰러울 뿐이었다.

4. 추락하는 것은 비명만 있다

올 상반기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시청한 사람들은 계절을 잊은 납량특집을 계속 보아야 했다. 초여름 더위는 놀라서 도망갈 만큼 날카로운 비명과 울음 소리가 난무하였다.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몸을 날려야 하는 연예인들이 질러대는 항변성 울부짖음 때문이다.

위험한 순간에 자신과 남을 구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과 도전 정신을 키운다는 명분 아래, 119 소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스타 공포체험’ 은 이름 그대로 온갖 공포 상황을 체험하게 하였다. 38층 난간 위에 서기, 수직 고가사다리 타고 올라가기, 공중에서 점프해서 난간에 올라서는 고공점프, 건물옥상에서 로프에 서의 급조하강, 건물 벽에 바짝 붙어 내려오는 역레펠

등 군사 훈련을 연상시키는 담력 시험과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 과정에 연예인들이 도전하였다. 당연히 대부분 겁에 질려 울고 소리를 수밖에 없게 되고, 카메라는 이를 놓칠세라 악착같이 따라다녔다.

4월 25일 ‘스타 공포체험’ 첫 회에 출연했던 최진실은 울며 소리지르고 도망다니다 급기야 “1억을 줘도 안한다”면서 중간에 포기했고, 5월 2일에 급조하강에 도전했던 핑클의 이효리는 머리카락이 로프에 끼는 바람에 머리카락만 한 움큼 뽑힌 채 대성통곡해야 했다. 그래도 여자 연예인들은 나은 편이다. 남자 연예인이 미적거리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면 MC의 멘트나 자막으로 ‘비겁한 표정’, ‘야비한 포즈’, ‘치사한 모습’이라며 가차없이 놀려대고 웃어댄다. 무서워서 눈도 못뜨고 우는 주영훈을 얼마나 조롱했던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의 모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고공점프를 할 때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자막과 함께 출연 연예인들이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했다고 강조하지만, 어린이들이 따라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벽돌깨기 시합을 벌이는데 머리카락이 영덩이로 깨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이런 무모한 행위들을 도전 정신이나 용기라고 치켜세우는 한, 어린이들의 모방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 ‘스타 공포체험’에서의 연예인 괴롭히기에 만족을 못했는지 아니면 시청률 면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인지,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5월 중순부터 40미터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도전! 스타가 한다’까지 신설해, 본격적인 연예인 담력 시험 프로그램으로 재단장하였다.

명분에 불과할 망정 그래도 소방훈련이라는 그럴듯한 방패막이가 있었던 ‘스타 공포체험’과 달리, ‘도전! 스타가 한다’는 아예 노골적으로 연예인 떨어뜨리기에 주력한다. 번지점프를 즐기면서 험사리 뛰어내리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 특히 겁 많은 여자 연예인들에겐 아무래도 벽찬 시도이다. 5월 30일에 출연한 김현주와 김유리는 점프대에서 한참을 울먹울먹 망설이다 포기했고, 그때마다 카메라는 얼른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듯, 겁에 질린 연예인들의 얼굴이 정말 우습지 않냐는 듯 클로즈업 해준다.

이 코너의 경우 연예인 확대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연예인 한 명을 따돌리고 조롱하는 ‘왕따’ 만들기이다. 도저히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대타맨’이라는 개그맨 김진수에게 대신 번지 점프를 시킨다. 김진수는 4주 연속 뛰어내렸는가 하면, 남자 연예인의 몰래 카메라에 속아 한 번 더 뛰기도 했다. 게다가, 대신 뛰어내리는 것도 억울한데 상의는 도령복에 하의는 타잔복, 뼈에로 상의에 잠옷 하의 같은 우스꽝스런 옷을

입혀 뛰어내리게 하니, 시청자마저 공범이 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진다.

작정하고서 한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겁이 많다고 만천하에 확인된 주영훈을 집요하게 높은 곳에 올려보내서 다시 한 번 비웃음을 사게 하는, ‘스타 공포체험’ 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자기 이름 석자를 확실히 알리려는 주영훈의 계산과 쇼가 엿보여 김진수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이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연예인 학대를 통해 가학적인 웃음 유발에 급급하면서도 그럴 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 공영성으로 위장하는 것은, 더 자극적이고 더 위험한 웃음을 추구하는 한 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5. 마이다스의 손 ‘신장개업’

지저분한 업소를 완전 개조하고, 부족한 기술이나 음식 솜씨를 그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되는 기술자, 장인들에게 교육받아 해결하며 성공을 위해 소심한 성격 개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힘든 업체를 살린다는 ‘신장개업’은 지원의 파격성과 좋은 결과로 일단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코너 역시 제시한 기획의도와는 달리 변질되어가는 듯하고 왜곡된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IMF라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점은 무시하고 실패를 철저히 개인화하고 또 그 성공을 위해 방송의 무소불위의 힘을 통해 안일하게 해결하려는 자세와 성격개조라는 이름으로 유치하게 진행되는 방식과 가치관 주입에 쉽게 찬성하기 힘들다.

이 코너에 신청 접수가 하루에 100통 이상씩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윤은기 소장은 말한다. “IMF이후 창업이 부쩍 늘었는데 준비없이 하면 실패한다. 이 코너 보면서 저렇게 하면 저런 마인드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고 철저히 비교분석해서 창업에 성공하기 바란다”. 그러나 성격은 개조해본다 쳐도 고급 인테리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일류 기술을 배울 수 없는 보통 창업자들에게겐 그림의 떡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협찬을 통해 돈 한 푼 안들이고 시청자들에게 거액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 좋고, 협찬사로서는 적은 경비로 주말 저녁 프라임 타임대의 최고 인기 오락 프로그램에 온 국민을 상대로 광고할 수 있어 좋고, 선정된 시청자로서는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금전적인 행운을 거머쥌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좋은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보통 시청자들의 마음은 썩 개운치가 않다. 어려운 시대에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그럴듯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감춰진 상업성과 시청률 논리에 우롱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이 바로 그것이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행운을 잡기 바라는 수많은 시청자들 덕에 시청률을 톡톡히 올릴 수 있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올 간접광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 염려스럽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암암리에 TV는 ‘슈퍼상자’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도 문제다. 가뜰이나 TV 편향이 두드러진 요즘 아이들에게 이같은 TV에 대한 맹목적인 이상화나 숭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심각히 고려해보아야 한다. 요행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문제다. 당첨만 되면 그동안의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되니 스스로 해결할 노력은 없고 언젠가 뽑히지 않을까 의타심만 키울 우려가 있다.

복권 당첨식의 프로그램은 일반 시청자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준다. 소원은 어느날 행운을 잡아서가 아니라 성실한 노력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뒤로 한 채 복권을 타듯 행운의 주인공이 될 날만을 기다리게 할 수 있다. 공영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락 프로그램에 시청자 소원 들어주기가 한 몫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선정기준도 투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선정 대상자를 보면 불쌍하거나 딱한 대상자들로, 방송거리가 될 만한 사연이 많았다. 예를 들어 병든 아들 치료비를 대야 하는 가장,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의 위기까지 간 부부,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키우는 홀어머니 등등이 선정되어 시청자들에게 동정과 더불어 선정의 당위성을 이해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자영업의 기반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도와준다는 데 있다. 화면으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이러한 선심이 더많은 어려운 형편의 시청자들에게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엄청난 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제작진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한때 불거졌던 대상자의 조작 시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내재적으로 배태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선정에 따른 또다른 문제의 예로는, 한 가게를 도와주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제작 방법으로 자칫 인근의 동종 업종 가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가게를 도와준다는 것은 다른 가게들의 판매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해결대작전을 위한 한 가게의 성공만 부각시키는 과정은 자칫 지역 구매력의 싹쓸이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

6. 맺는말: 시청자들은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느낀 반사회적 기능들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요일 밤이라는 시간적 조건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한 주일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순기능적 기능과 감동들에서 느꼈던 호감이 지난 1년 사이의 타락으로 변질되어 많은 실망만으로 남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가하는 점은 제작의 중요한 동기이고 지향해야할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청률 지상주의와 눈요기가 최우선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유지해야할 항목들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이 가진 시간적인 세팅과 그동안의 명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항목들에 주의를 기울여할 필요가 더욱 있다.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가에 못지 않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점을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간과하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몰래카메라의 엿보기 심리를 조장하거나 무서워하는 연예인들을 괴롭혀서 얻는 가학적인 흥미, 그리고 복권 당첨식의 사행심 조장을 시청률이라는 미명으로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들만의 잔치를 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해결대작전은 텔레비전이 가지는 공공성에 걸맞게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선정만 되면 엄청난 지원과 홍보를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역시 수궁이 가지 않는 편성이다. 서로가 속이고,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모르는 상황설정은 철저한 연예인 괴롭히기이고 이를 통해 얻는 것은 즐거움이 아닌 씁쓸한 웃음이다. 도감청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듯이 몰래카메라는 신뢰와 신용의 아름다운 미덕을 철저히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청소년에게 이들 방식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공익적 기능만 강조하는 윤리의식을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은 재미를 바탕으로 한 즐길 거리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전제는 반사회적 기능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겸허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도 해결대작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그들만의 잔치에서, 하루아침에 일일 매출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더욱 앓아지는 내 월급봉투와 비교해보면서 내 월급봉투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자조를 더 이상 하기 싫다. 시청자는 더 이상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 즐거움 속에서 감동이 있는 일요일 밤을 원한다.